

##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사례를 중심으로 －

##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Experience of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Focusing on the Case of Taiwha Christian Community Center

양혜원 (Hae-Won Yang)\*

### Abstract

This is a case study with the objectives of performing an in-depth investigation of the development process, the experience of the organization and individuals, and outcome/dilemma regarding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of Taiwha Christian community center. In-depth interviews with directors and social workers of Taiwha center, document review,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s were performed and qualitatively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evelopment process consisted of 3 phases including 'begin again', 'forming the basis', and 'flapping for leap'. Two themes, 'healing and restoration' and 'stepping forward slowly based on spontaneity and sincerity' were derived as the experience of the organization. Two themes, 'being clarified the legitimacy of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by internalizing identity' and 'struggling together for establishing concept and finding means' were derived as the experience of individuals. Four themes, 'a rich harvest of work', 'social workers' growth of faith · integration of faith and life, and professional growth based on virtuous circle', 'forming a healthy community for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and 'progressing a step for constructing the methods for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were derived as outcome. Two themes, 'letting go non-Christian colleagues' and 'dilemma as a Christian community welfare center that is the long arm of church but not a church' were derived as dilemma. Issues concerning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of Christian community welfare center were discussed based on these results.

**Key Words :** experience of Christian social work, process of Christian social work, qualitative case study

---

\* 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Chongshin University),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hwyang@chongshin.ac.kr

2017년 05월 29일 접수, 06월 30일 최종수정, 07월 04일 게재확정

## I. 서론

기독교사회복지는 기독교인이나 기독교 기관이 기독교적 신념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회복지활동을 뜻한다(양혜원, 2016: 164).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기관 중 기독교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고경환, 2006: 68) 사회복지사들 중에도 기독교인이 많은데, 이들 대부분이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일한다고 말하지만,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실제 모습은 일반 사회복지실천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소명의식을 가진 일부 사회복지사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기독교사회복지를 실천하고자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김희수·양혜원, 2008), 과학성 및 객관성 확보라는 미명 하에 대다수 기독교사회복지현장의 모습은 일반 사회복지현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교회복지지역도 일반 사회복지실천에 기도나 찬양 등 종교적 형식을 일부 첨가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박창우, 2013: 690).

이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데, 무엇보다 먼저 근대적 사회복지의 뿌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사회복지와 일반 사회복지에 여러 공통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사회복지와 일반 사회복지의 목적, 주체, 대상, 방법, 자원 등에 있어서 중복되는 면이 있고(박창우, 2013: 674-675), 일반 사회복지의 방법을 기독교 가치로 점검하여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조홍식, 2007: 145). 또한 사회복지가 제도화·과학화·전문화되는 과정에서 종교적 중립이 요구되면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고(최무열, 2004: 12), 사회복지실천과 학문의 영역에서 기독교적 전체와 가치가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비기독교인 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박창우, 2014: 645). 기독교사회복지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초보적 수준에 머물면서 기독교사회복지의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실천모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도 이에 영향을 미친다(강춘근, 2005: 12; 양혜원, 2007: 155; 박창우, 2013: 673). 이에 더하여 기독교사회복지의 성립 여부 자체가 논란이 되기도 한다. 교회라는 장에서 수행되는 교회복지지역이 존재할 뿐, 관점이나 이념에 근거를 두는 기독교사회복지의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sup>1)</sup>(이준우 역, 2001: 32).

1) 관련 내용을 이론적 배경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선 사회복지현장의 기독교사회복지사들은 신앙과 실천의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체성이나 자세 등 원론적 차원의 통합은 가능하지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있어서는 신앙과 실천의 통합에 상당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김희수·양혜원, 2008: 134-138; 정금선·양혜원, 2015: 191-192). 대다수 기독교 복지기관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 받으므로 공공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일반 사회복지실천과 구별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방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기독교사회복지는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그러한 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교회를 포함한 기독교 기관이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서 수행하는 사회복지를 뜻한다. 특히 사회복지지는 다분히 가치지향적인 전문직으로, 그러한 신념에 의하여 수행되는 실천의 실제적 양상은 일반 사회복지와 차별화될 것이고, 또한 차별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sup>2)</sup> 그러나 국내 기독교사회복지 연구는 양적으로는 증가했으나 질적으로는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국내 연구는 크게 실태조사, 기초이론 연구, 대상 및 문제별 교회복지사역 연구, 사회복지실천방안 연구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기초이론과 교회복지사역 연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문헌연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사회복지실천방안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반 사회복지실천방법 중 교회나 기독교 기관에 적용 가능한 것을 소개하는 초보적 수준으로(김희수·양혜원, 2008: 119-121),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실재를 실증적으로 탐구하거나(김희수·양혜원, 2008) 일선 사회복지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방법이나 사례를 다룬 연구(유장춘, 2003; 장선·김순안, 2012)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정부 지원을 받는 대다수 기독교 복지기관과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몇 년 간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온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하, 태화복지관)에 주목하여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과정과

2) 국내 및 해외 기독교사회복지 연구동향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기독교사회복지사의 실천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김희수·양혜원, 2008), “기독교복지와 사회복지의 비교에 관한 연구”(박창우, 2011)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기독교적 신념이 지역사회복지관 운영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사회복지사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를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을 표방하는 특정 지역사회복지관이 기존의 형식적 수준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해온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조직 및 사회복지사 개인이 경험한 바를 세밀하게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첫째, 태화복지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왔는가? 둘째, 태화복지관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조직 및 개인(사회복지사) 차원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 셋째, 태화복지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성과 및 딜레마는 무엇인가? 등이다. 이를 통하여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새로운 양상을 발견하고, 진정성 있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시도하고자 하는 기관 및 사회복지사들이 그들의 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기독교사회복지의 개념

상기한 바와 같이 기독교사회복지는 기독교적 신념에 의하여 기독교 기관이나 기독교인이 수행하는 사회복지활동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독교사회복지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정신을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이 기독교의 다양한 생명자원들을 동원하여 취약계층을 돕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천하는 일체의 활동”(유장춘, 2002: 90),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원리와 정신에 따라 인간의 삶이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영위되도록 도모하는 모든 노력”(이재서, 2013: 20), “창조-타락-구속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 등으로 정의된다(박창우, 2014: 646). 이러한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기독교사회복지가 기독교적 관점, 즉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복지활동이라는 점이다. 세계관이란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양성만 역, 1992: 13)을 의미한다.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은 창

조, 타락, 구속으로, 즉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범죄로 인한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며, 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의 삼중 렌즈”라고 할 수 있다 (신국원, 2005: 45-46).

반면에 이와 같이 특정한 ‘관점’에 의한 사회복지지는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교회복지사역이 존재할 수 있을 뿐 기독교사회복지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교회복지사역을 대표하는 학자인 갈랜드(이준우 역, 2001: 32)는 사회복지지는 의료사회복지, 교회복지사역 등과 같이 실천체계에 의하여 규정되거나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층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이지 개인의 신앙이나 가치관에 의하여 분류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와는 다소 다른 맥락으로 보이지만, 손용철(2002: 261) 역시 기독교사회복지를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라고 정의하면서 교회와 관련되지 않은 기독교사회복지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박창우(2009: 156-157)는 과학이 과학적 기반 위에 서 있지 않은 전제들 속에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과학에서 유독 종교적 패러다임을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사회복지에서 마르크스주의자나 여성주의자들이 그들의 신념을 사회복지에 접목시킨 급진 사회복지실천모델이나 여성주의 사회복지실천모델 등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사회복지지는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반박한 것이다. 단지 마르크스주의나 여성주의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에서는 가치의 문제를 특별히 중요시하므로 모든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의 세계관에 근거한 가치와 신념을 토대로 사회복지를 실천한다(양혜원, 2016: 167-168). 특히 세계관은 “바꾸거나 고칠 수는 있어도 완전히 벗어버릴 수는 없는 안경”(양승훈, 1992: 20)과 같고, 또한 실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삶의 구체적 현장에서 지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강춘근, 2004: 67) 고려할 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기독교인 또는 기독교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실천은 다른 세계관에 근거한 일반 사회복지실천과는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기독교사회복지가 기독교 세계관에 따른 사회복지활동이며, 이는 구분되고 분류될 수 있는 개념임을 명확히 한다.

## 2. 기독교사회복지와 일반 사회복지 비교

그렇다면 기독교사회복지와 일반 사회복지는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사회복지와 일

반 사회복지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사회복지는 기독교와 교회에 그 뿌리를 둔 것으로 기독교사회복지와 일반 사회복지는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진다. 이 둘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힘쓰며,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없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서 인접 학문의 지식과 기술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조망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실천방법에서도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양혜원, 2007: 160-161).

그러나 기독교사회복지와 일반 사회복지의 여러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먼저, 기독교사회복지의 사상적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정신에 기초하는 것인데 비해, 일반 사회복지의 보편적 인간애와 자유·평등 정신에 근거한다(양혜원, 2007: 161). 일반 사회복지의 이념적 토대에 이웃 사랑의 신학적 근거들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김동춘, 2003: 306). 기독교사회복지와 일반 사회복지의 인간관에 차이가 있다. 기독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엄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이며, 자율적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이중적 존재이기도 하다(양혜원, 2016: 171). 그러나 일반 사회복지의 인본주의에 근거하여 인간을 근본적으로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며, 전적인 자율성과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간주한다(양혜원, 2007: 161; 양혜원, 2016: 172). 궁극적 목적에 있어서 기독교사회복지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 비해, 일반 사회복지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보장과 인간의 행복 추구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김한옥, 2004: 37). 기독교사회복지와 일반 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천방법에 차이가 있다. 기독교사회복지에서도 일반 사회복지나 인접 학문의 이론이나 실천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반드시 기독교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활용 여부를 결정하고 재해석해서 적용해야 한다(양혜원, 2007: 163). 또한 기독교사회복지에서는 기도, 찬양, 예배 등 기독교적 형식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형식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적용해야 한다. 민간영역에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면 활용할 수 있지만 공공영역에서 당사자의 자발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박창우, 2013: 686-687). 기독교사회복지의 일반 사회복지와 달리 교회 또는 기독교인의 재정적 지원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복지의 목적, 방법, 대상, 내용의 결정에서 재원의 출처가 가지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기독교 가치에 부합되는 사회복지실천을 위해서는 교회나 기독교인이 지원하는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교회나 기독교인의 후원만으로 기독교사회복지를 실천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기독교사회복지는 결국 모든 인간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박창우, 2013: 687-688).

### 3. 기독교사회복지 실천방안

기독교사회복지의 실천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카미엑-케이스(Chamiec-Case, 2007)는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지침으로 실천의 전 과정에서 기독교적 신념과 가치를 일종의 ‘여과장치(filter)’로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신앙과 사회복지실천을 통합하는 전략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Chamiec-Case and Sherr, 2006: 271), 첫째 과정(process)통합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 신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질문을 던져서 점검하는 것이다. 예컨대 자신이 하는 일의 목적과 수단이 신앙적으로 정당한지 질문한다. 둘째, 내용(content)통합으로 관점, 태도, 업무내용 등에 있어서 기독교적 신념과 가치로부터 지속적인 지침을 얻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천과정의 의사결정이 성경에 부합하는지 점검한다. 셋째, 자각(awareness)통합으로 무의식적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강한 수준으로 영적 자각을 강조하는 것이다. 업무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구체적 방안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흐름은 그동안 사회복지실천에서 배제되어 온 영성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사회복지계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었고(손신·신효진, 2010: 201),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 교회와 기독교 기관, 기독교사회복지사들이 있다(원지영, 2013: 225). 영적 접근이 역경의 극복, 무책임한 행동의 억제, 윤리의식, 이타성, 신체적·정신적 대처능력의 향상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Walsh, 2007, 이혜숙, 2009: 13에서 재인용), 기존의 신체·심리·사회모델에서 신체·심리·사회·영적 모델로 시야가 확대되었고(조운희, 2010:

123), 영적인 문제가 당사자에 대한 전인적 이해에 필수적 영역이자 사회복지실천의 정당한 대상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원지영, 2013: 218).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기독교사회복지사들은 관련 교육·훈련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에게 신앙적 지침과 영성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odesto et al., 2006: 83). 기독교사회복지사의 31%가 당사자와 함께 기도한 경험이 있고, 78%는 종교 또는 영적 지지체계나 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적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Furman et al., 2011: 192). 미시적 차원 뿐 아니라 기독교사회복지 공동체, 조직문화, 조직성과 차원에서도 영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공동체 및 조직문화 차원의 영성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고(조운희, 2010: 129), 사회복지사의 영성이 강할수록 직무성고가 높으며(이혜정, 2002: 60), 신앙과 실천의 통합은 업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miec-Case and Sherr, 2006: 281).

그러나 우리 사회의 기독교사회복지사들에게 신앙과 실천의 통합이나 영성적 접근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지역사회복지관 등 공공의 성격을 갖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을 탐색한 질적 연구의 결과(김희수·양혜원, 2008: 153-154), 연구에 참여한 기독교사회복지사들은 정체성, 사명, 자세 등 원론적 차원에서는 신앙과 실천의 통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 실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 개인 차원의 기도, 신앙을 주제로 한 상담, 예배나 찬양, 교회회원 연계 등 초보적이고 표면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속 기관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 기독교 색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입장,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졌는데, 나름의 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혼란과 고민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관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현장 및 학계의 적극적인 연구와 논의, 그러한 연구와 논의를 통한 합의, 그리고 공감대의 확산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태화복지관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총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태화복지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과정, 조직 및 개인 차원의 경험, 성과 및 딜레마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연구방법인 질적 사례연구를 활용하였다.

질적 사례연구는 하나의 현상 또는 사회적 단위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체적인 기술과 분석을 시도하고(고미영 외, 2009: 68), 일정한 현상에 관한 특별한 관심에서 시작되어 그 사례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고심하는 연구방법이다(고미영, 2009: 18). 질적 사례연구는 현상의 변수들을 그 맥락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는 상황에 적합하고(Yin, 1984: 23), 특정적·서술적·발견적·귀납적 성격을 갖는다(허미화 역, 1994: 32-35). 질적 사례연구는 실생활에 닮은 내리고서 현상에 대한 풍부하고 총체적인 보고를 낳으며, 통찰을 제공하고 독자들의 경험을 확장시켜 주는 의미를 조명해낸다(허미화 역, 1994: 60).

#### 2. 연구사례 선정

태화복지관은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전도, 여성교육, 사회사업을 설립이념으로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이다. 1921년 ‘태화여자관’으로 개관하여 ‘태화사회관’을 거쳐 1980년부터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1995년 종로에서 현재 위치한 강남구 수서동으로 이전하였다. 실내수영장과 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어서 타 지역사회복지관들에 비해 다양한 사회체육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산하에 태화어린이집, 태화초록교실<sup>3)</sup>, 태화해뜨는샘<sup>4)</sup>, 강남구청소년쉼터,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5개 부속시설이 있다. 부속시설을 포함하여 총 9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복지관 소속 직원은 49명(사회복지사 17명)이다(2017. 4. 1. 기준).

3) 발달장애아동 보육시설

4)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태화복지관은 설립 당시부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일해 왔지만, 최근 기독교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기관운영 및 사업수행에 있어서 기독교 관점과 방법을 적용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섬김과 나눔’<sup>5)</sup> 사업의 일환으로 기독교사회복지 특화사업인 ‘도담도담’을 실시하면서 가속화되었는데, 본 연구자는 ‘섬김과 나눔’ 사업 준비단계에서 사회복지사 교육을 담당했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슈퍼비전을 제공했으며, 이외는 별도로, 태화복지관의 ‘도담도담’ 사업수행 및 연구보고서 작성에 자문교수로 참여하였다.<sup>6)</sup> 이러한 과정에서 태화복지관이 여타의 기독교 복지관들과는 확연히 다른 차원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우리 실천현장에서 보기 드문 독특한 경우로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 및 경험을 탐구하는데 적합한 사례로 판단되었다. 이에 태화복지관 관계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와 협조를 얻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태화복지관은 복지관 뿐 아니라 부속시설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복지관’ 및 ‘사회복지사’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을 탐구하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부속시설 및 사회복지사 이외의 종사자들을 제외하고 복지관과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들로 사례를 경계 지었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

질적 사례연구에서는 사례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 문서자료 검토, 참여관찰 등이

5) ‘섬김과 나눔’은 태화복지재단에서 실시한 기획사업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태화복지관을 포함한 5개 산하기관에서 재단의 목표 중 하나인 ‘섬김 역량 강화’에 부합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을 개발, 수행하였다.

6) 본 연구자가 태화복지관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에 일부 참여한 경험은 본 연구 수행의 발판이 되었지만, 반면에 연구자의 사례에 대한 선이해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후설(Husserl)은 사례에 대한 연구자의 선이해가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괄호치기(bracketing)’라고 표현하였다. 그가 제시한 괄호치기의 주요 방법으로는 자신의 가정과 선이해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 자료수집 및 분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문헌고찰을 실시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신경림 외, 2005: 236). 본 연구자는 괄호치기를 통하여 선이해가 연구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은 비구조화된 방식으로 1~2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대개 지금까지의 신앙 생활에 관해 묻는 것으로 시작하여 태화복지관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과 그 과정에서 경험한 바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면접 장소는 비밀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용한 곳을 원칙으로 했는데, 주로 기관 내 상담실이나 회의실 등이었고, 전임 관장과의 면접만 외부 식당에서 진행되었다.

문서자료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관련된 사업보고서, 연구보고서, 소책자 등 태화복지관에서 출간한 자료들<sup>7)</sup>을 활용하였고, 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사업계획서, 사업평가서 등 일부 사업기록 자료를 참고하였다. 기관 홈페이지 및 웹 문서 형식의 기관 소식지에 대한 검색도 이루어졌다.

참서관찰은 매주 진행되는 확대책임자(팀장) 기도모임 중 2017년 2월 1일에 진행된 모임과 매주 드리는 직원예배 중 2017년 2월 28일에 드려진 예배에 본 연구자가 참석하여 그 진행과정과 참석자들의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현장에서 주요 내용 및 질문을 메모하였고, 이후 메모를 참고하여 관찰 내용을 반추하면서 현장노트를 작성하였으며, 후속 면접 및 문서자료를 통하여 질문사항을 확인하였다.

자료분석은 질적 사례연구 방법에서 주로 활용되는 주제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제별 분석은 자료를 읽으면서 중심 주제를 찾고 이를 근거로 다시 자료를 검토하면서 관련된 소주제를 찾아서 중심 개념을 도출하는 것이다. 주제를 중심으로 사례를 세밀하게 기술하고, 이에 대해 연구자가 해석이나 주장을 제시할 수 있다(고미영 외, 2009: 72).

연구결과를 면접 참여자 중 3인에게 검토 받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및 질적 연구에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학과 교수 1인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7) 보고서에는 ‘이웃공동체를 꿈꾸다-좋은 이웃 만들기 도담도담 사업보고서 및 연구보고서’, ‘태화비전 2021 GREAT HARMONY 수립 보고서’, ‘태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등이 포함되고, 소책자로는 ‘발자욱’과 ‘발걸음’ 등이 있다. 소책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연구결과에 제시된 바를 참고하기 바란다.

#### 4. 연구(심층면접) 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심층면접은 ‘도담도담’을 담당했던 사회복지사와의 면접을 시작으로 하여, 참여자 1 인과의 면접을 마친 후 다음 면접 참여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면접 참여자는 현 관장과 전임 관장 등 관장 2인, 부장 1인, 사회복지사 5인 등 총 8인이고, 이들의 태화복지관 재직 기간은 짧게는 4년 10개월에서 길게는 21년이며, 소속 부서는 사회복지사업부, 총무부, 문화교육사업부 등 다양하다. 면접에는 입사 초기부터 줄곧 기독교 사명감으로 일해 온 경우, 반면에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본격화되었을 당시 신앙이 없거나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지 않던 상태여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 등, 신앙 및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사들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면접 참여자에게 연구목적과 연구과정을 설명하였고, 면접내용이 녹음되고 익명으로 인용될 것이며 연구과정 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 등 참여자의 권리에 관해 고지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면접 참여자들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제시하고 면접 내용을 인용할 때 진술자를 기호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정 기관을 중심으로 수행된 본 연구의 특성 상 익명성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면접 참여자의 개별적 특성을 제시하지 않았고 면접 내용 인용 시에도 진술자 기호를 명시하지 않았다.<sup>8)</sup>

8) 면접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연구결과에 면접 참여자 전원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특정 인용문이 어떠한 특성을 가진 면접 참여자의 견해인지 등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결과분석에 면접 참여자 전원의 의견을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논문에서 면접 참여자 전원의 진술을 인용하였다. 현 관장이나 전임 관장의 면접 내용 중 기관장의 진술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용문의 경우에는 본문에 이를 명시하였다(당사자들의 사전 동의 받음). 또한 기존에 출간된 문서자료에서 인용한 내용은 해당 문서자료에 제시된 실명과 직함을 그대로 밝혔다.

## IV. 연구결과

### 1.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

태화복지관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은 ‘다시 시작’, ‘토대 만들기’, ‘도약의 날갯짓’ 등 3단계를 거쳐서 발전해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 (1) 다시 시작: 위기를 극복하고자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봄

(2009년 9월~2011년)

태화복지관에서 기독교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다시금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S 관장이 부임하면서부터이다. S 관장 부임 당시 태화복지관은 여러 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었다. 외부로 많이 알려진 바는 사회체육 프로그램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일명 ‘수영장 사태’였지만, 그 외에도 직원 신분 및 급여체계가 불공정한 구조를 이루고 있었고, 조직 내 갈등도 심각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S 관장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기독교 정체성의 약화에서 찾았다.

“2009년 태화에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태화가 사회복지기관이라는 이유로 태화의 본질인 복음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기독교적 관점이 개입되는 것은 이용자에게는 불평등한 것이며 종교적 편견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설득력 있게 태화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중략) 당시 모든 분들이 태화의 재정 문제를 염려하셨습니다. 드러나는 현상은 재정문제였으나 실제로는 태화의 존재이유가 부인되고 구성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가는 상황이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심정식 관장, ‘발자욱’, p. 14)

S 관장은 자신의 사명을 태화복지관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인식했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것”, “진리하고 대적이 되는 것”, “세상의 가치들”을 걷어내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자신이 먼저 기독교를 내려놓았고 중간관리자들에게도 유사한 요구를 하였으며, 비정규직 문제 등 불공정한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심한 혼란과 저항이 발생했고 중간관리자들 중 상당수가 기관을 떠나기도 했다. 그러나 남은 직원들은 담

담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고 기관은 점차 안정되어 갔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나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전체적으로 깔려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다들 담담히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좀 말아서 하시려는 분위기였던 것 같고.”

S 관장은 부임 초기 대규모 내부공사를 앞두고 중간관리자들과 함께 기도모임을 시작했다. 관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생소한 자리였고, 상당 기간 어색한 분위기가 지속되었으나 모임이 중단되지는 않았다. 그 외에도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간관리자들의 마음을 모아갔다.

이 시기에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이를 사업수행에 직접 반영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1921년 태화를 설립한 선교사들의 첫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 **(2) 토대 만들기: 조직체계를 구축하면서 ‘도담도담’이라는 깃발을 들 (2012년~2015년)**

태화복지관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2012년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적합한 조직체계의 구축이고, 다른 하나는 ‘도담도담’이라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 특화사업의 수행이다.

조직체계 구축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직원 영성훈련과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는데, 먼저 전 단계의 중간관리자 기도모임이 개인별, 팀별, 직급별 기도모임 또는 큐티(quiet time)로 확대되었다. 중간관리자 기도모임이 지속될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권장되었고, 다수의 팀에서 팀 회의에 앞서 기도와 나눔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2013년부터 영성 동아리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태화복지관에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고 연간계획을 수립한 후 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활동하는 직원 동아리가 있는데, 스포츠나 요리 등 일반적 활동을 하는 동아리 외에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동아리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활동한 영성 동아리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온고지신’을 들 수 있는데, 온고지신에서는 태화복지관을 거쳐 간 선배 사회복지사들을 만나서 그들이 태화 재직 중 가졌던 사명감에 대해 인터뷰하는 활동을 하였다.<sup>9)</sup> 그 외 영성 동아리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기도하는 동아리, 기관에서 주차나 경비 등을 담당하는 운영지원팀 소속 직원들을 섬기는 동아리 등이 있다. ‘로그인’ 역시 중요한 직원 영성훈련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이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부의 스터디 모임으로 2014년에서 2015년에 걸쳐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관련 논문을 읽고 토론하거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는 등 소집단 학습을 진행하였다. 기관 설립 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직원예배도 직원 참여가 강화되는 방식으로 발전되었다. 월 1회는 목회자의 설교를 대신하여 각 부서가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으로 찬양, 위십(worship), 성극 등 다양한 형식의 예배가 드러진다. 이러한 영성훈련에 대한 대다수 직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해야 할 몫으로 받아들이고 자발성을 가지면서 부담감이 줄어들었고, 감사하는 마음과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는 게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럽고 되게 내 개인적인 것도 연결이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였기 때문에 그런 두 개가 맞물리면서 좀 어려웠었는데 그런 것들이 매해 진행이 되고 내가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흡수되고 그 안에서 증거들을 내 스스로 찾아내가면서는 오히려 덜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쉽지만은 않지만 감사하죠. 감사하고 이 과정 안에서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직 차원의 체계 구축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기록양식에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한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태화복지관에서는 2015년부터 사업계획서에 ‘기관사명과 관련해 본 사업이 가지는 의미’, 사업평가서에 ‘기관사명과 관련해 본 사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평가’라는 항목을 포함시켰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그 사업이 기관의 사명인 기독교사회복지실천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한 것이다. 평가도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특히 평가서에는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변화 사례’라는 항목도 넣어서 사례에 대한 질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기존의 양적 평가를 보완함과 동시에 양적 평가가 용이하지 않

9) ‘온고지신’에서는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여 ‘발자욱’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성과평가를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아직도 다수의 직원들에게 이러한 항목의 기록은 쉽지 않은 일이다. 여전히 추상적으로 기록하거나 사업을 계획한 후 성경에서 관련 구절을 찾는 등 초보적인 수준에서 기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틀을 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가 그걸 생각하느냐 안 생각하느냐의 차이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점” 하나를 놓아줌으로써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사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이해 및 의지를 세심하게 파악하여 반영한다거나 팀장 승진 시 신앙고백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사 선발 및 진급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역량이나 기독교 영성을 평가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전과는 달리 슈퍼비전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일상적이고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도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체계의 일부라고 하겠다.

다른 한 축인 ‘도담도담’은 태화복지재단 ‘섬김과 나눔’ 사업의 일부로 수행되었다. 태화복지관의 ‘도담도담’은 저소득가정의 가족 역량강화와 건강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적 관점이 기초가 되는 프로그램임을 명시하고 이에 동의하는 가정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자원봉사자나 부모교육 강사 등 투입 인력을 모두 기독교인으로 구성하였다. 2012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여 2013년에 사업이 시작되었고 2015년까지 3년 간 진행되었다.

‘도담도담’은 관장을 포함하여 대다수 직원들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필요성은 명확하게 인식하였으나 그 개념이나 방법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담당자는 입사 당시부터 줄곧 기독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왔지만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는 기존과는 다른 각별한 수준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면서 최선을 다했다. 또한 담당자, 슈퍼바이저, 자원봉사자 등 사업수행 인력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소통하는 모임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참여 가정의 가족 역량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고, 1차년도 말부터는 당사자들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당사자들과 담당자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임이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등 신앙적 열매도 거둘 수 있었다.

‘도담도담’은 원래 기획된 의도와 같이, 단지 이 사업을 수행하고 성과를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행과정에서의 경험 및 성과가 담당자로부터 소속 부서로, 또 소속 부서에서 전체 기관으로 흘러갔다. ‘도담도담’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깃발”이 되어주었다.

“○○○ 팀장님한테 피드백을 받고 슈퍼비전을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녹아나가면서 이렇게 부서로 되고 또 사회복지사업부가 중심이 되고 또 다른 부서에게 흘러보내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것이 ‘도담도담’ 하나의 사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이렇게 깃발이 되어주는 거죠. 그렇게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기에 태화복지관은 직원 영성훈련을 비롯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조직의 체계를 새롭게 하고 ‘도담도담’이라는 특화사업을 수행하면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 (3) 도약의 날갯짓: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도약을 위한 날개를 펴 (2016년)

태화복지관은 ‘도담도담’ 이후에도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점은 ‘태화 비전 2021’을 수립한 것이다. 2021년은 태화복지관이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태화 비전 2021’의 의미는 특별한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S 관장의 후임으로 2014년 부임한 현 Y 관장은 태화복지관의 미션과 비전을 새롭게 세우는 것을 자신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으로 인식하였다.

2015년 6월 태화비전위원회 ‘주춧돌’이 구성되어 그해 말까지 미션·비전 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이 이루어졌고, 2016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미션·비전 수립이 진행되었다. 미션·비전 수립의 기본 방향을 “하나님이 기대하는 태화, 지역주민이 기대하는 태화, 조직원이 기대하는 태화”로 설정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갔다. 또한 40명의 지역주민과 인터뷰를 실시하고, 12개 팀(시설)별 인터뷰도 실시하여 그 분석결과를 미션·비전의 기초자료로 삼았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션·비전의 초안을 도출한 후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2016년 12월 22일 ‘태화 비전 2021 GREAT HARMONY’ 선포식을 가졌다. 이렇게 수립된 태화복지관의 미션은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섬김과 나눔의 실천

을 통해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이며, 비전은 '관계를 중심으로 함께 세워가는 지역공동체', '기독교영성을 바탕으로 사랑이 흘러가는 섬김공동체', '조화를 우선하며 함께 걸어가는 대화공동체'이다. 이 중 '섬김공동체' 실현을 위한 핵심목표로 '사랑으로 섬기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실천전략으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역량 강화'와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을 제시하였다.

이는 전체 직원들에게, 특히 '주춧돌'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힘든 과정이었으나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전 직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대화의 모습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동안 역사적으로 거쳐 왔던 과정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대화가 이 시점에서 바로 서야 될지를 계속 자문해보자.”

“지역주민이 대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화가 어떻게 나가길 원하는가에 대해서 이분들(위원들)이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어가지고, 사업 담당자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워낙 다양한 직종이고 부서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러면서 대화를 같이 이야기하고 하다보니까 뭔가 직원들이 거기 안에 소속감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중간관리자들의 기도모임에 괄목할만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Y 관장은 2016년 초, 중간관리자 기도모임을 강화하고자 부장과 팀장으로 구분하여 모임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부장 기도모임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2016년 여름, 예상치 못한 난제로 기관이 잠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때 부장들은 매일 아침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로 중보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독교사회복지 스터디 모임 '로그인'도 한 단계 발전되었다. 2016년에는 논문이나 강의 등을 통해서 학습하던 수준에서 한 발 나아가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글로 쓰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sup>10)</sup>

대화복지관은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새롭게 수립된 미션·비전을 통하여 기독교 정체성을 재차 천명하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는 목표와 그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10) '로그인'에서는 이렇게 쓰여진 17편의 글을 모아서 '발걸음'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제시함으로써 도약을 위한 날갯짓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나타난 성장된 모습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 2. 조직 차원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

태화복지관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을 분석한 결과, 조직 차원 경험의 핵심 주제로 ‘치유와 회복’ 과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진정성을 담아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감’ 이 도출되었다.

### (1) 치유와 회복

태화복지관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통하여 무엇보다 먼저 조직 차원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였다. 상기한 바와 같이 S 관장 부임 당시 태화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문제는 크게 재정적 어려움, 불공정성, 관계갈등 등이었는데, 기관의 기독교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기독교 가치를 기반으로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그간의 상처가 점차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때는 아주 갈등이 너무 첨예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노사협의회하면 책상을 다 내려쳐야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다 직원들이 굉장히 어느 기간까지 고통을 다 감내하겠다는 것을 동의해 주고, 정말 아주 눈물바다가 되는 그런 주님의 일하심이 있었죠.”

“기도모임이라는 주제로 책임자들이 성장할 수 있게 계속 만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중략) 정말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책임자분들이요.”

### (2)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진정성을 담아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감

조직 차원에서 볼 때, 태화복지관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의 또 다른 핵심 주제는 자발성과 진정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긴 호흡의 전진이다.

태화복지관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주요 결정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도담도담’ 담당자를 결정하는 과정이 그러했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개념과 방법이 모호하고 기존 경험도 전무한 상황에서 3년 간 진행될 특화사업을 맡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사명감을 가

진 한 직원이 기도로 준비하고 결단하여 자원하였다. 비전위원회 구성도 자발성이 전제되어, 각 팀별로 자원하는 직원 한 명씩을 위원으로 선정하였다. 영성 동아리 역시 사회복지사들이 자발적으로 주제를 정하고 구성원을 모아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자발성은 진정성으로 이어졌다. 다양한 영성훈련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냥 헛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된 이야기가 오간다. 비전위원회 실무를 책임진 직원은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 편지를 건네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자발성에 이러한 진심 어린 수고가 더해져서인지 위원들 역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을 잃지 않았다.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명, 개인의 사명, 기관의 사명이 무엇인지 좀 더 맞추기 위해 이곳(비전위원회)에 참여한다’라는 고백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고요.”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진정성을 담으면서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것에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온 직원들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는 방향성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일부 기독교에 거부감이 있거나 기독교가 생소한 직원들도 있었는데, 이들을 위하여 기관은 “단계를 한 번에 확 가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나아갔다. 신앙적 고민이 많았던 한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는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준다.

“고민해보라고도 하시고 정말 많이 조언해주셨는데 그때 기다려주신 것, 그니까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지금도 감사한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현실적으로 내가 부딪혀야 할 부분이 뭐라고 알려주셨지만 그 부분을 막 채근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천천히 가는 데에, 덜 힘들게 갈 수 있었던 힘이 됐어요.”

Y 관장은 전임자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지금 자신이 거두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고, 자신이 지금 뿌리는 씨앗의 열매는 또 언젠가 다른 누군가가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서두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단계를 거쳐서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계속 사람도 만드시고 태화에서 또 만드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긴 한데 저는 지금 저도 제가 아마 열매도 거두지만 뿌리는 단계인 사람들이나 사업도 있을 텐데 그 다음에 누군가가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략) 지금 저는

그 단계를 가고 있음을 계속 기억하는 거죠.”

### 3. 개인(사회복지사) 차원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

태화복지관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개인적 차원의 경험은 ‘정체성을 내재화함으로써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당위성이 명료해짐’과 ‘개념을 정립하고 방법을 찾기 위해 함께 분투함’이라는 주제로 분석되었다.

#### (1) 정체성을 내재화함으로써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당위성이 명료해짐

① 역사인식에 근거하여 정체성을 내재화하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사명으로 받아들임  
태화복지관은 기독교 정체성이 뚜렷한 기관이다. 이는 선교사들이 복음전도를 궁극적 사명으로 하여 설립한 기관이라는 역사적 인식에 근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태화를 1921년에 세우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귀한 역사로 인식하고 지금 현재도 그게 동일하게 현재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태화가 그 길을 계속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태화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미션과 비전이 뭐냐 이런 질문부터 시작했는데 결국 ‘미션은 우리의 존재 이유이다’라고 했을 때 거기 참여하셨던 모든 직원들이 빠짐없이 이야기했었던 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는 거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태화복지관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본격화하면서 이러한 역사인식에 바탕을 둔 기독교 정체성이 기관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복지사 개개인에게도 내재화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각자의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중간관리자들부터 “뭔가 해보려는 시도”를 하면서 각자 자신의 실천을 기독교 관점에서 돌아보게 되었다. 모태신앙이지만 신앙과 떨어져 있었던 한 직원은 기독교 정체성이 내재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을 경험했지만 기관의 방향성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기독교사회복지를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좀 나와 가지고 그게 어떤 방법이 됐건 계속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책임자들이, 확대책임자들이 그 틀 안에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들이 지

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실천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실무자 스스로 계속 하는 모습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게 잘 내재화가 안됐던 거죠. 내재화가 안되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중략) 사업 자체에 이걸 녹여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갈 순 없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하게 됐고 이제 선배님들한테 조언 구해가면서 성장하면서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하고 느껴졌죠.”

## ②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태화복지관이 차별화되는 지점

태화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기독교 정체성에 바탕을 둔 사명감과 더불어 태화복지관이 여타의 복지관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바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고 인식한다. 그럼으로써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당위성이 더욱 명료해지는 것이다.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이 “상향평준화”되면서 기관별 특성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태화복지관에서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고유한 “브랜드”이고, “나아가야 되는 유일한 방향”이라고 인식한다.

“옛날에 잘나가던 태화가 내세우던 사회복지기술은 이미 많이 상향평준화가 되었고 우리도 그 어느 기관의 우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끄러울 일일수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또 그리로 나아가야 되냐 그것도 사실 모르겠다. 그러면 어떤 방향을 봐야 되냐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기독교사회복지밖에 없다. 기독교 영성을 우리의 일로써 녹여내는 것 밖에 없다. 이 일을 도구 삼을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어쩌면 브랜드가 되고 어쩌면 나아가야 되는 유일한 방향이 아니냐.”

## (2) 개념을 정립하고 방법을 찾기 위해 ‘함께’ 분투함

### ① 나름의 개념을 정리함

태화복지관에서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사업에 대한 접목이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에도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았다. 관련 논문이나 ‘섬김과 나눔’ 사업 준비과정에서 이루어진 교육 등에서 원론적 개념은 접할 수 있었지만 사업에 담아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들은 “막막함”을 느끼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간의 고민과 시도, 영성훈련과정 등을 통해서 이제는 적어도 각자 자신이 이해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름의 답을 찾아가고 있다. “누구나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이야기는 “먼 나라의 어느 누군가의 것”이 아닌 자신의 정리된 생각이다.

“고민하는 자리에서 누군가 이것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다’라고 명쾌하게 정의한 것이 없어 이 실천이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무엇이나 물으면 누구나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기에 이것이 먼 나라의 어느 누군가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심혜정 팀장, ‘발걸음’, p. 30).”

## ② 개념의 조각들을 모아감

그러나 지금도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개념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혼란이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고 부분적인 소통의 어려움도 경험하고 있다. 합의가 쉽지 않은 것에 대해 한 직원은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이 꼬끼리를 만지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전임 관장의 이해를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다.

“기독교사회복지하면은 필요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에 대해서 생각은 다 각자 다르게 갖고 있는데 얘기해보면 좀 뭔가 지향점이나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면 조금씩 뭔가 핀트가 안 맞거나 지향,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줄 때 딱 밀도 있게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S 관장님이 그 세미나에서 하셨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꼬끼리를 이렇게 보면 꼬끼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각자 만지는 위치가 다를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질 거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질 거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면서 이게 꼬끼리 형상일거라고 상상하는 것과 같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도 그런 거 아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무엇이나에 관한 생각의 “조각들”이 조금씩 모아지고 있다. 그 중 가장 명료한 것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결국 실천가의 영성에 달린 것이라는 인식이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개개인의 크리스천 사회복지사들이 걸어가는 그 과정 자체를 말하는 것 같”고,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사회복지사”이며,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건 실무자의 영성”이라는데 생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하다보면 궁금한 것도 많고 이런데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답을 찾고 그니까 서로 물으면 서로가 답을 찾는 누군가가 답을 찾아가고 이런 조각들을 모으는 작업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각 개개인의 크리스천 사회복지사들이 걸어가는 그 과정 자체를 말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일의 중심을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가, 오직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묻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아진 부장, ‘발걸음’, p. 23-24)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사회복지사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서 어떤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건 실무자의 그 영성이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실무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느냐 또 어떤 관점으로 일을 하느냐가 결국은 그 참여자분들로 하여금 투영되게 되어있는 것 같고 참여자분들의 반응에서도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또한 사회복지 전문성보다 기독교 영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 즉 기독교 영성이 본질이고 사회복지의 방법론이라는 S 관장의 인식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사회복지하고 기독교 가치하고 양날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날개가 아닌 거를 제가 현장에 가서... 법인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 가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사회복지가 본질이고 사회사업은 방법론이구나’라는 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S 관장님께서, 인터뷰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거는 그니까는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 기독교 영성의 중간지대에 머물지 말고 우선순위는 기독교 영성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어야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제가 동의가 되어지고 그 부분이 맞다는 생각이...”

### ③ 다양한 방법을 시도함

이와 같이 태화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고 공통분모를 모아감과 동시에 각자 맡은 사업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구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자 분투하고 있다. 이들이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방법은 사회복지사 영성, 사회복지사 관점, 사회복지사 업무자세, 당사자 영성, 기독교 자원 활용 등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 i) 사회복지사 영성 차원

사회복지사 영성 차원의 시도는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이에는 예배, 기도와 말씀 묵상, 영적 성찰 등이 포함된다. 이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결국 사회복지사의 영성에 달린 것이라는 인식과 직접 연결되는 지점으로 사회복지사가 ‘성령 충만’해야 제대로 된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를 위한 기도에 힘쓰는데, 이 역시 사회복지사 영성 차원의 시도로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더 친밀하게 가져가고 또 하나님과 더 교제하면서 가는 것 그게 영성으로도 충만해, 그니까 충만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내 삶에서 계속 중요하게 가져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기독교사회복지사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묵상을 통한 지속적인 영적 성찰과정을 가졌으며, 담당 사회복지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명확히 깨닫고자 하였다. 이 가운데 인간의 절대적 노력보다는 영적인 민감성 속에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며 실천하고자 했다.” (‘도담도담’ 연구보고서, p. 103)

“프로그램을 계획하며 참여할 당사자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과정 전체에 참여하는 돕는 자들과 본인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또 해당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고백하며 기도한 그 기도문은 제게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정말 특별한 일임을 깨닫게 하는 기회였습니다.” (이아진 부장, ‘발걸음’, p. 25)

## ii) 사회복지사 관점 차원

사회복지사의 관점 차원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점검하고 성경에서 답을 구하는 노력이 나타난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본주의 관점으로부터 기독교 관점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예컨대, 최근 사회복지현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자연주의에 대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계”하면서 “복음적인 부분들과 함께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각자의 실천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조명하여 “재해석”한다. 당사자들을 만날 때 기독교 인간관,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귀하게 대접한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제시된 바를 프로그램에 직접 접목하기도 한다.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서는 그동안 유지해왔던 인본주의적 관점의 지식과 기술, 가치를 내려놓고자 했고 기독교 관점의 인간관과 세계관으로 재구축(reset)하고자 했다.” (‘도담도담’ 연구보고서, p. 102)

“사람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쉽게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사람들은 정작 본인에게는 존재만으로 귀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복지관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이 사실이 느껴지도록 대하고 이야기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용도연 사회복지사, ‘발걸음’, p. 41)

“예를 들면 캠프라든지 부모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꼭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성경적,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프로그램에 접목시킬 수 있겠다.”

### iii) 사회복지사 업무자세 차원

사회복지사 업무자세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기독교인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감을 분명히 하고 자신이 받은 소명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것이다. 또한 업무 상 의사 결정을 할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중하게 하고자 애쓰고,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통상적 기준에 비해 더 높은 수준에 당고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한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서는 그 실무자들 관계된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안에서 내가 왜 이 일터에서 일하려고 하는지, 무슨 사명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분별하고 판단할 때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가? 그리고 응대할 때 말씀드릴 때에도 우리가 무슨 구청 직원도 아닌데 ‘어머니, 어럽습니다’ (중략)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부대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여러 번 거듭 말씀드리고 다시 설득 드리고 하는 과정이...”

업무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당사자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려고 노력하는 것 역시 이 차원의 시도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자연스러운 기독교인의 “항기”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별한 수고나 노력 없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신앙에 기초한 훈련된 삶이 원숙한 수준에 이르러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사랑)을 우리에게 부여해주셨고 그래서 그런 분들과 만나면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뭐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그제 자연스럽게 그냥 뭔가 가식적으로 꾸미지 않게 하다보니까...”

“(‘도담도담’에 참여한 당사자들 중 한 명이)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도 있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진행하시는 복지사님이나 또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멤버들의 좋은 면들, 말하자면 향기? 어... 그 향기를 맡고 ‘아, 나도 교회를 다녀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어... 마음의 다짐을 하시고 교회를 다니신 것 같아요.” (‘도담도담’ 연구보고서, 당사자 인터뷰, p. 124)

최고책임자 역시 자신이 매일의 삶을 통해서 중간관리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모범이 되는 것이 중요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방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Y 관장은 중간관리자들이 자신을 따라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길을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고자 날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결국은 저는 ‘책임자들과 제가 어떻게 나누느냐’, ‘그들이 보기에 정말 이 리더십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게 안되면 뭐 기독교사회복지실천까지 갈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책임자들과 일하면서 ‘관장님을 따라가 보자. 관장님과 함께 가보자’라는 마음이 안 될까. 그거가 안되는 거는 제가 본이 안 되면 금방 그 생각이 들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매일매일 내가 부끄럽지 않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저도 싸우는 거죠.”

#### iv) 당사자 영성 차원

당사자 영성 차원은 사회복지사가 직접적으로 당사자의 기독교 영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시도를 뜻한다. 이에에는 기도, 성경말씀 나눔, 간증, 전도,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영적 영향력 미치도록 돕기 등이 포함된다.

기도는 주로 사회복지사가 당사자를 개별적으로 만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당사자가 기도하기를 원하거나 사회복지사의 기도하자는 제안을 당사자가 받아들이는 경우 함께 기도한다. 드물지만 집단 프로그램에서 기도를 드리는 경우도 있다. 태화복지관이 기독교 기관이라는 점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 중 기도를 제안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비기독교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중재한다. 다음 사례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회복지사가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크게 고민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기도와 같은 신앙적 요소가 가시화되지 않아도 신앙과 사회복지가 제대로 통합되는 “바나나 케이크”<sup>11)</sup> 같은 실천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진행하는 입장으로서는 좀 그 안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했던 경험들이 있던 것 같고요. 그게 저한테 막 큰 고민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게 사실 교수님께서 저번에 말씀해주신 바나나 케이크의 형태를 항상 저는 그 모임 안에서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모임을 제안해주신 어르신한테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려서 ‘그냥 어르신께서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거를 같이 꼭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반대하셨던 어머님한테는 ‘지금처럼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중재는 계속 했던 경험은 있고요.”

한편 기독교사회복지 특화사업인 ‘도담도담’에서는 이와는 다른 선택이 이루어졌다. 당사자 대표들과 담당자가 진행해 온 기도모임을 일반 당사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고 하자 이에 반대하는 당사자가 있어서 갈등이 초래되었는데, 이때 담당 사회복지사는 반대하는 당사자를 설득해서 기도모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도담도담’이 기독교 관점에 기반을 둔다는 것에 당사자들이 동의한 바 있고, 영적 치유를 위해서 기도모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반대하는 당사자가 기도모임을 제안한 당사자의 의도를 오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었다.

“기도모임을 전제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심에도 ‘그걸 꼭 이제 기도모임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기도모임을 확대하자라고 제안을 해주셨던 분이 모임 내에서 아버님이신데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도담도담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하다가지고 아마 그렇게 반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중략) 부모집담당도 하고 다양한 캠프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도 먼저 영적인 부분들이 계속 다뤄지면서 그 안에서 좀 서로 이제 영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치유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들이 들었고 그런 부분들이 되려면 먼저 영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분위기가 되려면 또 기도모임 자체가 꾸준히 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는 부분이 판단이 들어서 거기에서는 좀 이렇게 나갔던 맥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 
- 11) 여기서 바나나 케이크는 신앙과 삶의 진정성 있는 통합을 의미한다. 이는 ‘섬김과 나눔’ 사업 준비 교육(2012. 7. 25.)에서 본 연구자가 언급한 내용으로, 신앙과 삶을 통합하는 세 가지 방식을 생크림 케이크, 건포도 케이크, 바나나 케이크에 비유한 것이다. 생크림 케이크는 케이크 표면에 생크림을 바른 것처럼 신앙과 삶이 이원화된 채 가시적인 신앙 활동만 이루어진 경우, 건포도 케이크는 케이크 여기저기 건포도가 박혀있는 것처럼 신앙과 삶의 통합이 매우 단편적인 수준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바나나 케이크는 바나나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케이크에 바나나가 완전히 섞여진 것처럼 신앙과 삶이 의미 있게 통합된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자는 신국원 교수(총신대, 신학과)의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유형화와 해당 비유를 접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성경말씀 나눔 역시 주로 사회복지사가 당사자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방법이다. ‘도담도담’ 담당자는 당사자 중 한 명이 우울, 가족문제, 진로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자 매주 개별적으로 만나서 함께 성경을 읽고 영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례관리 담당 사회복지사 중 한 명은 연초에 개별 사례관리 목표를 수립하면서 당사자와 협의하여 한 해 동안 목표로 삼을 성경말씀을 정하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진행사항을 모니터할 계획이다.

간증은 주로 일반적인 사회복지실천기술의 하나인 자기 노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회복지사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앙적인 경험을 빚대어서” 나누는 것이다. 예컨대, 자신에게 기독교 신앙이 어떤 의미인지, 자신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앙이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전도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가 당사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다. 전도는 가장 강력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방법이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직접적인 전도가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로 적절한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음 사례의 사회복지사는 그러한 논란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지만 당사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물질적·정서적 필요 뿐 아니라 영적 필요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복음을 전했다. 그는 종교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자 당사자의 반응을 민감하게 살폈고, 특히 일반적 지원이 모두 이루어진 이후에 영적으로 접근하여 지원이 결코 “미끼”가 되지 않도록 유의했다. 그는 이 과정을 이상적인 기독교사회복지실천으로 인식했다.

“사실 이분한테는 그런 부분보다도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엄격한 사람들은 종교행위를 강요하면 안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중략) 정말 이 가정에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들어서 꼭 안 전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해서 교회로까지 연결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가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지원이나 심리적인 지원을 넘어서 영적인 부분들까지도 함께 해줘야지 당사자의 삶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회사업을 이렇게 좀 해야겠다’라는 경험을 했던 것 같고요. (중략) 본인이 거부감이나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게 이제 지원 전이면 그게 이렇게 미끼가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미 지원이 다 이루어진 상황이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상황이라... 그 이후로도 계속 교회를 나가셨기 때문에...”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영적 영향력 미치도록 돕기란, 사회복지사가 모든 당사자들의 영성에 접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실한 기독교인 당사자가 영적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서 그를 통해서 여러 당사자들에게 영적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도담도담’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을 한 사회복지사들은 그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다른 사업에서도 유사한 시도를 하고 있다.

“영성을 갖춘 실무자 및 실무자와 중심을 함께 하는 일부 참여가족들로 인해 ‘도담도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음. 이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다른 참여가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 가운데서 힘을 얻는 가족들을 또 다른 영성을 갖춘 자들로 세워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음.” (‘도담도담’ 사업보고서, p. 77)

“그 목사님 가정과의 그 접촉들, 어쨌든 힘 실어주고 같이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을 계속 세워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안에는 정말 많은 지역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담도담’처럼 12가정에 한정된 게 아니고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렇게 힘 실어주실 수 있는 분들을 세우는 일들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필요로 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생각들은 좀 더 하게 돼요.”

#### v) 기독교 자원 활용 차원

교회, 목회자, 기독교 전문가 등 다양한 기독교 자원을 활용한다. 지역사회 교회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데, 찬양집회를 통해서 모금을 하거나 성도들이 노방전도를 할 때 복지관 홍보물을 같이 배포하도록 하고 교회 도서관에서 지역주민 모임을 갖는 등 그 방법이 다양하고 창의적이다. 목회자들에게는 주로 자문을 구한다. 신규 사업을 계획하면서 지역 목회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사업에 반영하고, 당사자인 목사님께 해당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기도 한다. 기독교 전문가를 초빙하여 부모교육 특강을 실시하는 등 기독교 전문가도 적극 활용한다. 그 밖에도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에게 유사한 경험을 가진 목사님을 ‘이웃’으로 주선하는 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기독교 자원에 대한 발굴과 활용이 이루어진다.

#### ④ 함께함

태화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개념을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자 ‘함께’ 분투해왔다. ‘도담도담’을 담당한 사회복지사들이 서로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는 모습은 이들의 ‘함께함’을 세밀하게 보여준다. ‘함께’ 소명을 품고 ‘함

께' 궁리하고 '함께' 견고 '함께' 답을 찾는 과정이 의미 있음을 깨닫는다.

“사업을 하기 전에 넷이서 이렇게 모여서 나눔을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값지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이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런 상황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 네 명 실무자들 간에 나눔을 통한 조금 더 이 안에서 묵상할 수 있는 부분들, 이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고백하고 나누고 서로 기도 주고 받을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조금 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니 답을 얻을 수 없어도 힘이 났습니다. 같은 뜻을 품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있다는 사실에 힘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을 함께 품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란 무엇인가?’라는 답을 찾는 발걸음 속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임장현 팀장, ‘발걸음’, p. 88-89)

#### 4.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성과 및 딜레마

태화복지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성과는 ‘사업의 풍성한 열매’, ‘사회복지사의 신앙 성장·신앙과 삶의 통합 및 선순환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전문가로서의 성장’, ‘건강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공동체 형성’,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방안 구축을 위한 일보 전진’ 등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믿음이 없는 동료들을 떠나보냄’과 ‘교회의 긴 팔이지만 교회는 아닌 기독교사회복지관으로서의 고충’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딜레마로 분석되었다.

##### (1) 성과

###### ① 사업의 풍성한 열매

태화복지관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통하여 풍성한 사업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 비기독교인 당사자가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거나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경우가 드물지 않고, 또 기독교인들 중에도 신앙적으로 크게 성장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신앙적 변화는 당사자들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와서 소명의식이 분명해진 후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여 성공한 당사자나 자녀양육에 긍정적 변화를 보인 당사자 등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다.

“그 안에서 어머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그 안에서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 10번 정도 만났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어머님께서 원래 이제 공무원을 하시고 싶어 하셨는데 자신이 왜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으신 거죠. (중략) 그 이유를 찾고 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걸 위해서 정진하는 모습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지금은 공무원이 되셨고요.”

“(연계해드린) 목사님이란 그동안 만나면서 ‘아 이게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하시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녀를 보는 게 관점이 좀 달라지셨다는 거죠. 좀 더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고 과거에는 막 때렸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이에게 좀 물어보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전 굉장히 놀라웠어요.”

사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기독교사회복지 특화사업인 ‘도담도담’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도담도담’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반 프로그램의 당사자들 역시 사회복지사들이 기쁘게 업무에 임하는 모습이나 당사자들을 남달리 존중하는 자세 등을 충분히 체감하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냈다.

“그냥 평범한 일상적이 아니라 이제 기독교 영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더 진솔하게 열려 있지 않았을까? 마음이. 뭐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하면서, 늘 생각했던 게 우리는 ‘정말 이 프로그램 정말 특별하다. 어디에도 이런 건 없을 거다.’ 아 이렇게, 그런 생각했어요.” (‘도담도담’ 연구보고서, 당사자 인터뷰, p. 141)

“그러면서 당사자분들이 주시는 피드백이 이전과는 다른 내용들로 주시니까 ‘아,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아닌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좀 얘기해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주시는 메시지가 좀 달랐던 것 중에 뭐였냐면 우리 일하는 사람들 안에 기쁨이 있고 또 우리를 만날 때 대하는 자세나 태도들이 다르더라. 그런 얘기를 정말, 그러한 이야기를 최근에 좀 많이 해주셨었어요.”

“하지만 10월 첫 주에 진행된 옹기종기 FGI에서 한 어머님께서 ‘옹기종기에 오면 일단 즐거워요.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가정에서 존중을 받겠어요? 사회에서 존중을 받겠어요? 별 것 하지 않아도, 이야기만 해도 좋아요’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담당자가 알아서 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담당자만 힘든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도 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체감하고 계셨습니다. 담당자가 당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는 것어요.” (김혜림 대리, ‘발걸음’, p. 47)



## ② 사회복지사의 신앙 성장 · 신앙과 삶의 통합 및 선순환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전문가로서의 성장

신앙적 성장은 초기의 신앙 수준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사회복지사들에게서 나타난 성과이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실체가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적 확신과 소명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통하여 신앙과 삶, 신앙과 사회복지라는 자신의 일을 통합시키게 되었다.

“그거는 제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성장이었어요. (중략) 제가 복음, 십자가 복음,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의 하나님이었는데 그게 실체가 되는 하나님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나의 여러 가지 죄들을 더 드러내서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고백하면서...”

“제가 이제 입사 초기에 사실 신앙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사회복지를 왜 하는지도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중략) 저는 조금 아 이런 일을 하는 이유, 그 어떤 가치 그니까 가치적으로 내가 다른 것보다 이 직업이나 이 일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들을 좀 찾아나가는 과정이어서 지고... (중략)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해 힘쓴 시간의 의미를) 삶과 일과 신앙을 좀 통합하는 과정이었다고 정의할 것 같아요.”

더불어 전문가로서의 성장도 이루어졌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통하여 얻게 되는 감동과 기쁨이라는 보상,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긍정적 가치부여는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진 것이다.

“일에서의 준 감동이나 그런 기쁨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직원들도 고되긴 하지만 ‘아 이게 정말 사회사업이고 이렇게 일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자연적으로 일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장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더 나은 삶을 그리고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돼서 또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중략) 제가 여기서 뭐 더 배울 게 없다고 느껴지면 떠나야겠죠. 지금도 계속 신앙적인 부분, 업무적인 부분,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 ③ 건강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공동체 형성

건강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공동체가 형성된 것 역시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이다. 태

화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업무에 관해 함께 나누고 점검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받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공동체를 이루었다. 기도모임이나 큐티 등을 통해서 사적인 이야기가 많이 오가다보니 문제가 생길 법도 하지만 서로 경계를 잘 지키면서 성숙하게 상호작용하여 탈 없이 지내고 있다.

“제가 그런 시간에 많이 나누죠. 어려운 결정들을 했을 때에. 저도 역시 어려운 결정을 했을 때에 그런 마음의 어려움, 이게 정말 크리스찬 기관으로서 이렇게 판단하는 데에 내가 정말 적절한 역할을 했는가 그런 부분이 있었다 뭐 부대졌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도해주세요’ 요청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제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기도해달라고 왜냐면 저 혼자 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제가 온전히 집중을 예배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 주로 저랑 슈퍼비전 오래한 팀장님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선을 잘 지켜서 오픈하는 정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서로를 뭐라고 하지 않는 것도 있었고 개인적인 선을 잘 지키는 것도 있었고.”

#### ④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방안 구축을 위한 일보 전진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한 걸음 진보가 이루어졌다. 이제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해 각자 생각하는 단계를 지나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우리’의 개념을 정리해나가는 과정에 있다. ‘도담도담’을 수행한 경험이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조직 차원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방향성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실제 사업에 적용해 보았고, 이제는 매뉴얼 작성을 기대할 정도로 “깎때기”가 좁혀졌다.

“내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부서 내에서 계속 공유함으로써 이게 앞으로 어떻게 또 진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사업부가 생각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는 건 이런 거라는 것들을 점점 정리해나가는 그 과정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는 영역에 회미하지만 그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과인 것 같고 이렇게 시도해본 사업들이 결국은 다른 사업들에도 계속해서 영향이 미치는 것, 그리고 ‘도담도담’ 사업을 실행하면서 이제 조직 차원에서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더 뚜렷해지는 부분, 조직 차원에서의 성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단계를 밟아가는 중이라고 생각이 돼요. 맨 처음에 기독교사회복지가 뭔지 각자의 생각이나 이런 추상적이지만 이런 방향, 지향, 방향이나 최종 목적 정도를 하는 단계, 그 다음에 한번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는 조금 적용을 시도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매뉴얼, 소위 차기에는 뭐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단계들. 점점 이제 이렇게 갈때기를 이렇게 좁혀나가는....”

## (2) 딜레마

### ① 믿음이 없는 동료들을 떠나보냄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본격화된 이후 태화복지관 사회복지사들에게 가장 큰 안타까움이자 한계로 남은 문제는 일부 믿음이 없는 동료들이 기관을 떠난 것이다. 신앙을 받아들이기 위한 본인의 노력은 물론 선후배와 동료들의 기도와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관을 떠나간 직원들이 있다.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를 제가 바로 밑에 후임이니깐 뭔가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고 힘든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신앙적인 부분들로써 이야기를 해주면 그거 자체도 부담스러워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성경을 한번 나한테 사달라’라고 해서 성경을 한번 사준 적이 있거든요. 네 나름 노력했어요. (중략)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친구가 이제 퇴사하고 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이었죠. 우리 조직 내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한테는 이슈였던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태화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현안은 아니다. 기존 사회복지사들 중 비기독교인들은 신앙을 받아들였거나 혹은 퇴사하여 현재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들은 모두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전과 달리 최근 태화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 채용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해 준비된 정도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기관 내에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고 관련된 고민도 있다. “잘 믿는 사람 뽑아서 달려 나갈 수 있게 하자”라는 입장과 “누가 되었든지 간에 태화에 와서 일하다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게 하실 거”라는 생각이 공존하는 것이다. 후자는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인식이 있는 반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조직 내에 다양한 목

소리가 있어야 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런 고민 속에서 한 사회복지사는 의도적으로 비기독교인 실습생을 선발하여 “이상”의 실현 가능성을 탐색해보기도 했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하는 조직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참 고민이 되는데, 조직이기 때문에 하나의 미션으로 나가야되기 때문에 그런 구성원으로 뽑아야 되는가, 아니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들어와도 거기에 잘 순응하고 적응해서 함께 미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연한 구조여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저는 후자였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불신자가 들어와도 그 안에서 ‘정말 여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 안에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함께 미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너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가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저희 팀 동료 선생님이 얼마 전에 그만 두시긴 했는데 그 선생님은 비기독교인이었어요. (중략) 기독교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런 되게 관념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 그게 실천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걸 되게 확실히 이야기해주는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때로는 되게 밋게 들리기는 했지만 그게 되게 자극이 되긴 했었어요. 그니까 믿는 사람이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우면 아쉬운 부분일 것 같고.”

“일부러 이제 비기독교인인 실습생을 뽑았었어요. 그래서 실습지도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영향이 되게 많이 끼쳐지더라고요. (중략) 예를 들어 예배나 그런 큐티나 이런 것들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실습 말미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알고 싶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저에게는 되게 너무 감동이었는데...”

## ② ‘교회의 긴 팔’이지만 교회가 아닌 ‘기독교사회복지관’으로서의 고충

태화복지관의 6대 관장인 빌링스가 처음 사용한 ‘교회의 긴 팔’이라는 용어는 태화복지관의 기독교 정체성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으로 지금도 태화복지관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다. 그런데 다음 진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런 용어가 제시된 배경이 단순하지만은 않고, 당사와 유사한 딜레마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교회와 기독교사회복지관의 역할 경계, 그리고 서로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 및 존중에 관한 문제이다. 일선 사회복지사들도 기독교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맥락의 문제에 부딪히고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다. ‘도담도담’에 참여한 목사님이 ‘목회’와는 다른 ‘기

독교사회복지실천'을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담당자의 이야기에 이러한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6대 관장님이신 페기 빌링스 관장님께서 대화를 ‘교회의 긴 팔’이라고 표현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교회의 긴 팔’이라고 표현해 주신 게 우리가 이제 교회가 닿지 않는 영역까지 정말 서비스를 잘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해주셨지만 그 이면에 ‘왜 교회를 짓지 복지관을 짓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보기에든 목사님들이 보시기에도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하시다가 ‘교회의 긴 팔’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일 텐데 ‘기독교 정신으로 일한다’라고 하지 ‘기독교실천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중략) 한국의 교회나 교단이나 사회복지나 다 비슷한 딜레마이기는 해요.”

“이 모임 자체가 계속 어떤 구역모임처럼 그렇게 가기를 원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설득해나가는 과정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서 목회자 분이 들어올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충분히 되어있으시든지...”

다면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특성으로 인한 고충도 적지 않다. 탁월한 수준의 사회복지실천 전문성을 갖춰야하는 것은 기본이고, 교회의 역할과는 분명히 차별화되면서, 동시에 기독교 세계관에 철저하게 두 발을 딛고 서야하기 때문이다. 한 사회복지사는 기독교 관점의 부모교육을 계획하면서 교회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고민하였고, 또 다른 사회복지사는 성경에 관한 지식이나 신학적 지식이 부족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제가 생각한 거는 그거는(기독교 관점의 부모교육) 복지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또 하고요. ‘지역교회에서도 다 하는 수행하는 기능인데 복지관이랑 교회랑 다른 게 뭐가 있어?’라는 그거죠.”

“제 스스로 성경적인 어떤 공부, 연구들을 했으면 더 많이 알았으면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써 잘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개인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중략) 신학대학원을 가야되나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지식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여기서 지식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적 지식들, 신학적 지식들이 부족하다보니까...”

또한 태화복지관 역시, 대다수 기독교사회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 즉 기독교

기관이자 정부 지원을 받는 지역사회복지관이라는 원론적 고충에서 자유롭지 않다. 기독교사회복지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복지관으로서의 역할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모로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성령님께서 당사자의 영혼을 움직여주실 것으로 믿고 기독교 색채를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으려 한다는 한 사회복지사의 입장은 이러한 고충과 맥락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목회자가 기독교 기관이자 지역사회복지관인 태화복지관에 기대하는 역할에 관하여 이야기한 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기독교 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뭐 함께 그것들을 나누거나 하는 것들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중략) 그거는 성령님께서 움직여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저는 저 안에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저의 어떤 권한 밖의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더 그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의도적은 아니지만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중략)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복지관이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제 많은 지역주민들을 함께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기관이라는 색깔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양한 지역주민들을 만나는데 있어서 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어떻게 잘 녹아내려줄 수 있을까 그게 가장 뭐 어쨌든 저도 고민인 것 같아요. (중략) 그냥 지혜롭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은 향후에는 또 가져가야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화가 이 동네에 큰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곳이면 좋겠음. 교회는 종교라는 제약이 있고, 주민센터는 관공서 느낌이 강한데, 태화는 기독교 이름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좀 더 지역주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임.” (태화 비전 2021 GREAT HARMONY 수립 보고서, 지역 목회자 인터뷰, p. 76)

보다 현실적 차원에서는 후속 기독교사회복지 특화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에 대한 고민도 있다. 일반 복지재단으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는 정부 예산에 의존하지 않는 ‘자비량’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한 훗날의 꿈을 꾸기도 한다.

“이 ‘도담도담’이라는 사업은 말씀하신대로 특수성이 있는 사업이었고 그만한 예산이 또 지워졌었던 사업이었죠. 근데 이제 다른 뭐 ○○(일반 복지재단)라든지에 있어서는 이런 기독교적인 색채를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그렇다하면 이런 예산을 지원받지 않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더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더 잘할 수 있는 보조금 베이스로 일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꿈을 이제 꾸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국가가 지원해주는 그 상황, 안전한 상황이 아니고 다른 상황을 요구하셨을 때에 ‘그렇게 하겠습니까’라고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가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태화복지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과정, 조직 및 개인 차원의 경험, 그리고 성과 및 딜레마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태화복지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심층면접, 문서자료, 참여관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태화복지관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은 ‘다시 시작’, ‘토대 만들기’, ‘도약의 날갯짓’ 등 3 단계를 거쳐서 발전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직 차원의 경험으로는 ‘치유와 회복’과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진정성을 담아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감’이, 개인 차원의 경험으로는 ‘정체성을 내재화함으로써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당위성이 명료해짐’과 ‘개념을 정립하고 방법을 찾기 위해 함께 분투함’이 주제로 도출되었다. 성과는 ‘사업의 풍성한 열매’, ‘사회복지사의 신앙 성장·신앙과 삶의 통합 및 선순환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전문가로서의 성장’, ‘건강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공동체 형성’,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방안 구축을 위한 일보 전진’ 등으로 나타났다. ‘믿음이 없는 동료들을 떠나보냄’과 ‘교회의 긴 팔이지만 교회는 아닌 기독교사회복지관으로서의 고충’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딜레마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관한 논의 및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화복지관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주목할 바는 지도자의 역할 및 자질이라고 하겠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기독교 정체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조직의 치유와 회복을 이끌어내고, 본격적인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적용하고 발전시키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게 된 데에는 기관장들의 지도력이 큰 몫을 한 것이다. 이들은 탁월한 기독교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신념이 확고했으며,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지렛대’라든가 ‘100주년을 향한 미션·비전의 수립’과 같이 자신의 역할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스스로 먼저 기득권을 내려

놓았고, 자신이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고 있다. 이러한 도덕성은 신앙적 성숙이 전제된 것이라고 하겠으며, 이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지향하는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절대적 필요조건이라고 하겠다. 지도자가 아무리 뛰어난 전문적 역량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조직구성원들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자발성’과 ‘진정성’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성패에 핵심적 요인이고 이를 위해서는 ‘긴 호흡’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역시 지도자의 자세와 결정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태화복지관의 경우, 기관장들이 ‘속도’보다는 ‘방향’을 중시하면서 오래 기다려주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직원들로부터 자발성과 진정성을 끌어낼 수 있었다.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일이 비일비재한 우리의 현실에서, 내가 씨앗을 뿌리지만 열매를 거두는 것은 다음 사람의 몫일 수 있다는 자세는 흔히 보기 어려운 지도자의 모습이다. 그러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지도력의 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둘째, 태화복지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주요 전략으로 직원영성훈련, 기독교 특화사업, 기록양식 보완, 미션·비전의 수립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전략들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직원영성훈련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결국 사회복지사의 영성에 좌우되는 것이라는 원론적 인식에 대한 모범답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일이지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과정을 구성하고, 직원들, 특히 신앙적으로 준비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업, 사회복지사, 공동체, 실천방안 등 다면적 차원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성과를 거두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또한 ‘도담도담’의 성공적 수행으로 기독교 특화사업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초기에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전략임이 입증되었다. 특화사업을 통하여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실제적 방법들이 다양하게 시도되었고, 그 과정과 결과가 공유되면서 복지관 전체 사업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성과로 기관 차원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다양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지역사회복지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므로 특화사업의 양적 확대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기관의 신념이 확고하고 기관의 기독교 정체성에 대한 지역사회와 당사자들의 인식도 분명한



태화복지관의 경우에는 특화사업을 브랜드화하여 장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교단, 대형교회, 기독교복지재단 등의 후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보완된 기록양식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사료된다. 확장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특화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전체 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양적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관념적·표면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내면적 차원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질적 차원이다.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직원영성 훈련이 내실 있게 지속되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경험이 축적되어간다면 이러한 장치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수립된 미션·비전 2021은 그 수립과정을 통하여 태화복지관 역사의 핵심인 선교적 사명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한 확고한 틀을 마련하였고, 그 내용에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 뿐 아니라 도약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담고 있어서 더욱 고무적이다. 특히, 소수의 리더가 제시하는 미션·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지역의 목소리에 힘껏 귀 기울이고 구성원들의 생각도 빠짐없이 담아낸 것이 더 의미 있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태화복지관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개념적 합의를 상당 부분 이루고 실천 방안 구축에 있어서도 한 걸음 전진한 것으로 평가한다. 면접 참여자들 중 다수가 개념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이는 원론적 차원의 개념적 합의는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에 있어서의 모호함이나 이견 때문에 제시된 견해로 사료된다. 실천 방안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경험이 축적되면서 발전의 초기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지식의 구성수준은 흔히 패러다임, 관점·시각, 이론, 모델, 실천지혜의 순서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좁아지고 구체화되는 역삼각형 또는 회오리 모양의 도식(김혜란 외, 2006: 18)으로 표현되는데, 본 연구의 면접 참여자 중 한 명은 이를 “갈때기”라고 표현했고, 그 갈때기가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런데 패러다임·관점 차원에 근거한 사회복지활동으로 정의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모델·실천지혜 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고, 특히 이론이 정립되지 않고 모델이 개발되지 않은 실정에서 패러다임이나 관점 차원의 개념을 가지고 실천현장에서 사업을 구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근거하는 ‘세계관’의 속성 상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사나 당사자 삶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 그 전체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실제화되는 양상은 매우 다면적이고 다양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코끼리 만지는 것에 비유한 것은 관점의 추상성과 삶 전체라는 넓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태화복지관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아직도 코끼리의 일부분을 만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있지만 각자가 접한 코끼리의 부위가 확장되고 또 서로가 확인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서서히 코끼리의 전체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확실적인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겠다. 코끼리의 본질적 특징이 명료하다면 그 안에서 개인의 신앙적 배경이나 성숙도, 당사자나 사업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된 개인차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실천방법들은 김희수·양혜원(2008)의 연구에서 나타난 기독교사회복지사 개인 차원의 방법들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질적으로도 심화된 것이다. 기관 전체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중점을 두고, 직원영성훈련이나 특화사업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들 중 사회복지사의 영성, 관점, 업무자세 차원의 방법은 기독교 색채가 거의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적다. 소위 바나나 케이크에 충실한 방법들인 것이다. 결국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고민스러운 방법은 당사자 영성 강화와 기독교 자원 활용으로, 이는 공공의 성격을 갖는 지역사회복지관으로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의 딜레마로 이어진다. 기도나 전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혹은 당사자 영성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이 있고, 교회나 다른 기독교 기관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역할을 차별화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는 기독교사회복지관으로서의 정체성, 전문성, 역할 경계에 대한 이슈라고 하겠으며, 이에 대한 당위적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어떻게’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인데, 본 연구를 통하여 그 실마리가 일부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본 연구에 제시된 사례 중 하나에는 사회복지사가 당사자를 전도하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는데, 그는 전도에 대한 영적 확신이 있었고, 종교적 중립에 대한 윤리적 요구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당사자의 종교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서비스 제공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복음을 전하였다. 이 사례를 통하여 전도라는 특정한 기독교사회

복지실천 방법에 대해 ‘적절하다’ 혹은 ‘그렇지 않다’라는 가부의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상황과 맥락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고, 전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몇 가지 지침도 확인할 수 있다. 그 과정이 이 사례와 같이 진행된다면 전도도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선택 가능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방법인 것이다. 체계화된 실천 모델의 개발은 여전히 향후의 과제로 남겨지는데, 이를 위해서 질적 연구 등 귀납적 접근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양한 사례를 모으고, 이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된 입장과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양적 연구도 병행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과업은 성과측정 도구의 개발이다. 어떠한 연구방법이 활용되든지 간에 그 과정에서 실천현장과 연구자들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태화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본격화된 이후 일부 비기독교인 동료들이 기관을 떠나면서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경험하였다. 현재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들은 모두 기독교인이므로 당분간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 채용이 이슈로 등장하였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해 충분히 준비된 사회복지사를 채용함으로써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더욱 힘차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비기독교인들도 함께 하는 유연하고 긴장감 있는 공동체, 특히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에게 ‘삶으로 전도’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이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자체가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열린 자세로 공동체 차원의 논의를 지속하면서 시의적으로 적합한 시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사회복지사가 비기독교인 실습생을 선발한 것은 그 좋은 예라고 하겠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강춘근 (2004). 기독교 사회복지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과 학문**, 9(1), 41-85.  
 [Kang, C. G. (2004). How to study a Christian social welfare as science. *Faith & Scholarship*, 9(1), 41-85.]
- 강춘근 (2005). 기독교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에 대한 소고. **신앙과 학문**, 10(1), 9-49.  
 [Kang, C. G. (2005). A study on the value and ethics of the Christian social welfare. *Faith & Scholarship*, 10(1), 9-49.]
- 고경환 (2006). 한국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실태분석. **보건복지포럼**, 115, 65-73.  
 [Ko, G. H. (2006). Analysis of religious organizations' contribution to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Korea: 2001-2003.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15, 65-73.]
- 고미영 (2009). **질적사례연구**. 서울: 청목출판사.  
 [Ko, M. Y. (2009). *Qualitative Case Study Research*. Seoul: Chongmok.]
- 고미영 · 하경희 · 박정임 (2009).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임파워먼트 실천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1, 63-99.  
 [Ko, M. Y., K. H. Ha and J. I. Park (2009). A qualitative case study of empowerment practice in a community psychiatric rehabilitation center. *Mental Health & Social Work*, 31, 63-99.]
- 김동춘 (2003). 교회적 디아코니아와 국가적 사회복지: 사회복지의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교회적 대안인가? **성경과 신학**, 33, 305-330.  
 [Kim, D. C. (2003). Diakonia of church and national social welfare: Social welfare is an answer for church's social responsibility? *Bible & Theology*, 33, 305-330.]
- 김한옥 (2004). **기독교 사회봉사의 역사와 신학**. 실천신학연구소.  
 [Kim, H. O. (2004). *History of Christian Community Service and Theology*. Practical Theological Institute.]
- 김혜란 · 홍선미 · 공계순 (2006).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파주: 나남출판.  
 [Kim, H. L., S. M. Hong and G. S. Kong (2006). *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Paju: Nanam Publishing House.]
- 김희수 · 양혜원 (2008). 기독교 사회복지사의 실천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신앙과 학문**, 13(3), 115-164.  
 [Kim, H. S. and H. W. Yang (2008). An exploratory study on Christian social workers' experience. *Faith & Scholarship*, 13(3), 115-164.]
- 박창우 (2009).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 복지의 방향. **신앙과 학문**, 14(1),

- 147-174.
- [Park, C. W. (2009). Direction for Christian welfare based on the Christian world view. *Faith & Scholarship*, 14(1), 147-174.]
- 박창우 (2011). 기독교복지와 사회복지의 비교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27, 309-341.
- [Park, C. W. (2011). A comparative study between Christian welfare and social welfare. *Theology and Praxis*, 27, 309-341.]
- 박창우 (2013). 기독교복지의 구성 영역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36, 671-694.
- [Park, C. W. (2013). A study on the component scope of Christian social welfare. *Theology and Praxis*, 36, 671-694.]
- 박창우 (2014). 인간관 비교에 따른 기독교사회복지에 관한 소고(小考). *신학과 실천*, 38, 625-650.
- [Park, C. W. (2014). A study on the Christian social welfare according to the comparison of human view. *Theology and Praxis*, 38, 625-650.]
- 손신 · 신호진 (2010).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종교와 영성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고찰. *신학논단*, 59, 201-226.
- [Son, S. and H. J. Shin (2010). The meaning and role of spirituality and religion in social work practice. *Theological Forum*, 59, 201-226.]
- 손용철 (2002). 기독교사회복지 정체성에 대한 연구. *그리스도신학대학교 교수논문집*, 255-280.
- [Son, Y. C. (2002). A study on the identity of Christian social welfare. *The Journal of KCU*, 255-280.]
- 신경림 · 조명옥 · 양진향 외 (2004).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Shin, K. L., M. O. Cho and J. H. Yang (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Ewha Women's University Press.]
- 신국원 (2005). *니고데모의 안경*.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Shin, K. W. (2005). *Spectacles of Nicodemus: A story of Christian World View*. Seoul: IVP.]
- 양성만 역 (1992). *창조 · 타락 · 구속*. Wolters, A. M. (1985).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Yang, S. M. (1992). *Creation · Corruption · Redemption*. Seoul: IVP. Trans. Wolters, A. M. (1985).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 양승훈 (1992). *기독교 세계관의 이해와 적용*. 서울: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출판부.

[Yang, S. H. (1992).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Christian World View*. Publishing Department of Cooperative Association for Christian University Establishment.]

양혜원 (2007). 기독교사회복지의 개념과 실천모델에 대한 기초연구. **총신대논총**, 27, 147-171.

[Yang, H. W. (2007). A preliminary study on the concept and practice model of Christian social welfare. *The Journal of Chongshin University*, 27, 141-171.]

양혜원 (2016). 기독교사회복지의 개념 및 정체성. **총신대논총**, 36, 159-184.

[Yang, H. W. (2016). The concept and identity of Christian social welfare. *The Journal of Chongshin University*, 36, 159-184.]

원지영 (2013).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영성의 통합 가능성에 대한 고찰. **복음과 실천신학**, 27, 214-236.

[Won, J. Y. (2013). Integrating spirituality in social work practice. *The Gospel and Praxis*, 27, 214-236.]

유장춘 (2002). 기독교사회복지운동의 방향과 전략. **연세사회복지연구**, 8, 86-135.

[Yoo, J. C. (2002). A suggestion for the direction and strategies of the Christian social welfare movement. *Yonsei Social Welfare Review*, 8, 86-135.]

유장춘 (2003).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영성적 접근 가능성에 대한 탐색. **통합연구**, 16(2), 9-44.

[Yoo, J. C. (2003). An exploring the possibilities of the spiritual approach to social work practice. *Journal of Integrative Studies*, 16(2), 9-44.]

이재서 (2013). **기독교사회복지의 근원: 복지신학으로 가는 길**. 서울: 세계밀알.

[Lee, J. S. (2013). *The Root of Christian Social Welfare: Toward Welfare Theology*. Seoul: World Milal.]

이준우 역 (2001). **교회사회사업**. Garland, D. S. (Ed.) (1992). *Church Social Work: Helping the Whole Person in the Context of the Church*. 서울: 인간과 복지.

[Lee, J. W. (2001). *Church Social Work*. Seoul: Human & Welfare Books. Trans. Garland, D. S. (Ed.) (1992). *Church Social Work: Helping the Whole Person in the Context of the Church*. St. Davids, PA: North American Association of Christians in Social Work.]

이혜숙 (2009). 영성적 관점에서 가족 레질리언스의 이해와 적용. **교회사회사업**, 11, 7-37.

[Lee, H. S. (2009). The understanding and the application of family resilience

- from the Christian spirituality perspective. *Journal of Church Social Work*, 11, 7-37.]
- 이혜정 (2002).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영성과 직무성공에 관한 연구: 가톨릭 수도자들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Lee, H. J. (2002). *A Study of Spirituality and Job Performance among the Religious in Catholic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장선 · 김순안 (2012). 기독교 원리를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피해여성  
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응력,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신앙과 학문**, 17(3), 245-269.
- [Chang, S. and S. A. Kim (2012). Effect of applying Christian principle to group counselling program on the self esteem, social adjustab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of female family violence victims. *Faith & Scholarship*, 17(3), 245-269.]
- 정금선 · 양혜원 (2015). 소형교회 목회자와 목회자 아내의 복지사업 참여 경험에  
대한 연구. **신앙과 학문**, 20(4), 161-196.
- [Jung, G. S. and H. W. Yang (2015). Participation in church social work by pastors and pastors' wives in small churches. *Faith & Scholarship*, 20(4), 161-196.]
- 조운희 (2010). 사회복지사의 영성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신학과 목회**, 34, 121-148.
- [Cho, W. H. (2010).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orker's spirituality and organization effectiveness. *Theology and Ministry*, 34, 121-148.]
- 조홍식 (2007). 기독교사회복지의 개념과 방법론. 조홍식 (편저). **한국기독교사회복지총람**(pp. 139-150).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 [Cho, H. S. (2007). Concept and methods of Christian social welfare. In Cho, H. S. (Ed.), *The Pandect of Korean Christian Social Welfare*(pp. 139-150). Seoul: Korean Council of Christian Social Welfare.]
- 최무열 (2004). **한국 사회와 사회복지**. 서울: 나눔의집.
- [Choi, M. Y. (2004). *Korean Society and Social Welfare*. Seoul: Press of Sharing House.]
- 허미화 역 (1994). **질적 사례연구법**. Merriam, S. B. (1988).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서울: 양서원.
- [Heo, M. W. (1994). Qualitative Case Study Research. Seoul: Yangseowon. Trans. Merriam, S. B. (1988).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San Francisco: Jossey-Bass.

Chamiec-Case, R. and M. Sherr (2006). Exploring how social work administrators integrate spirituality in the workplace. *Social Work & Christianity*, 33(3), 268-287.

Chamiec-Case, R. (2007). Exploring the filtering role of Christian beliefs and values in the integration of Christian faith and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 Christianity*, 34(4), 498-512.

Furman, L. D., P. W. Benson and E. R. Canda (2011). Christian social workers' attitudes on the role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U. S. social work practice and education: 1997-2008. *Social Work & Christianity*, 38(2), 175-200.

Modesto, K. E., A. J. Weaver and K. J. Flannelly (2006). A systematic review of religious and spiritual research in social work. *Social Work & Christianity*, 33(1), 77-89.

Yin, R. K. (198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Newbury Park, CA: Sage.



## 논문초록

#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사례를 중심으로 -

양혜원 (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과정, 조직 및 개인 차원의 경험, 성과 및 딜레마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질적 사례연구이다. 관장·사회복지사 대상 심층면접, 문서자료, 참여관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주제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은 ‘다시 시작’, ‘토대 만들기’, ‘도약의 날갯짓’ 등 3단계를 거쳐서 발전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직 차원의 경험으로는 ‘치유와 회복’ 과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진정성을 담아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감’이, 개인 차원의 경험으로는 ‘정체성을 내재화함으로써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당위성이 명료해짐’과 ‘개념을 정립하고 방법을 찾기 위해 함께 분투함’이 주제로 도출되었다. 성과는 ‘사업의 풍성한 열매’, ‘사회복지사의 신앙성장·신앙과 삶의 통합 및 선순환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전문가로서의 성장’, ‘건강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공동체 형성’,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방안 구축을 위한 일보 전진’ 등으로 나타났다. ‘믿음이 없는 동료들을 떠나보냄’과 ‘교회의 긴 팔이지만 교회는 아닌 기독교사회복지관으로서의 고충’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딜레마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기독교사회복지, 실천 과정, 실천 경험, 질적 사례연구

